

## 陽明思想의 要約

薛泰熙

### 小 引

新을 追從하는 現代雜誌로서 낡은 學說을 紹介한다는 것도 奇러니와 置之 度外한 儒敎哲學—더구나 朝鮮서는 꿈적도 못해 내려온 王學을 紹介한다는 것은 사뭇 稀貴한 感이 업지 안타. 이제 所托에 依하여 陽明學說의 要約을 쓰려고 하거니와 三百行以內라는 所定紙數로는 거이 不可能한 일이다. 더욱이 한 個의 學說을 소개하려면 그 前驅를 敍述치 안을 수 업는데 이것이 不能이니 遺憾이다.

王學은 勿論 儒敎哲學의 一流波다. 程朱學派가 程朱로써 儒學의 正統者라고 하는 것처럼 陸王學派는 陸王으로써 儒學의 大成者라고 한다. 儒敎의 宇宙觀乃至人生觀은 『天地는 父母 萬物은 子孫』이라는 觀念으로 一貫한다. 그리 하여 萬物中에도 『사람』이 스사로 靈長的 責任을 가지고 『天地萬物皆爲一體』라는 見解下에서 『德化主義』를 세운것 이다. 德化主義임으로 政敎는 一致해야 할 것이 었고 政敎一致임으로 政治는 倫理를 基礎로 하지 안코는 안될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王道』라는 것이니 王道의 王字는 天地人 聯立을 象徴한 橫三縱一의 象形이다. 卽 天地自然의 理法에 人의 參贊을 加한다는 것이니 倫理와 政治를 合致하여 德化主義를 實現하였던 『三代治化』란 것도 그것이 王道임을 稱揚하는 것이다. 孔子堯舜을 祖述하고 孟子言必稱堯舜이라함은 그『人物』을 가르침이 아니오. 『德化』를 가르침이다. 人物의 實在與否는 問題삼을 것도 없이 그 人物을 通하여 『王道』를 憧憬하였던것이다. 王道의 王은 後世에서 이르는 帝王 君王의 『王』은 絶대로 아니다.

何如間 古學의 貴한 點은 政敎一致의 實踐에 잇섯다. 그럼으로 原來 思辨을 그러케 重視하지를 안엇던 것이다. 그리 하였던 것이 孟 荀의 辨解가 漢唐의 詞章과 訓誥속에서 그 大經만이 傳해 오다가 宋에 이르러 純理的 哲學의 思辨에 치우치게 되어 乃終에는 支離滅裂하는 弊害를 끼치고 말엇다. 王陽明으로 하여곰 『莫知適從 厭此而就彼』라는 苦言으로 宋學에 對하여 不滿

을 가지게 한 것도 이 까닭이었다. 筆者 또한 漢唐以後의 宋學에 對하여 不快를 느끼거니와 陽明의 學說中에도 異同의 點이 不無하다. 하나 本稿는 오직 王學을 紹介함에만 긋치고 筆者의 主見은 一切로 避하려고 한다.

### 第一 王陽明의 事蹟

陽明의 姓은 王 名은 守仁 字는 伯安. 瑯琊人으로 後移餘姚. 明憲宗 成化八年生. 年十七에 임이 宋儒의 格物致知解釋에 疑心을 품었든 사람이다. 陽明洞에 書室을 짓고 五經을 講讀하였다고 하여 後人이 陽明先生이라고 한 것이다. 老佛學에도 많이 所詣가 잇섯스나 必竟 虛와 空이 實世間主義가 아니라하여 指斥하고 龍場에 摘居한 三年동안에 默坐研學 實務執行함으로써 自家 獨特한 學系를 세운 것이다. 『居夷三年 始得聖人之道』라고 自稱하였다. 官은 兵部尙書에 이르고 寧王宸濠의 亂을 平定한 功으로 新建伯에 封爵되었다. 世宗嘉靖七年에 病으로 南安에서 終하니 享年五十七 諡號는 文成公. 卒하는날 門人周積이 遺言을 請하니 微笑하면서 『此心光明亦復何言』이라는 一言을 남겼을 뿐이라고 한다. 所著는 古本大學 傳習錄 語錄 文錄 別錄 外集 附錄 征藩功次 朱子晚年定論 王陽明全書 등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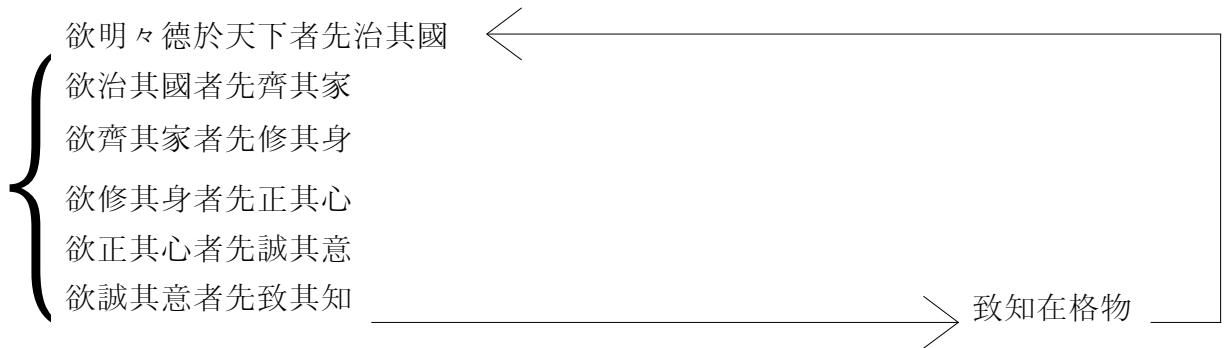
### 第二 先驅인 古學과 宋學

儒敎思想을 溯究하려면 包犧氏의 始劃八卦로부터 始作하여 先秦以前의 古學과 그 以後의 所謂宋學을 一瞥치 않을 수 없스나 紙面關係로 이것은 到底히 不可能이다. 그러나 陽明의 思想을 紹介하려면 片鱗이라도 그 先驅를 지은 先儒의 諸說을 舉論치 않을 수 없다. 그럼으로 說明은 避하고 若干의 表解로써 그 輪廓만을 于先提示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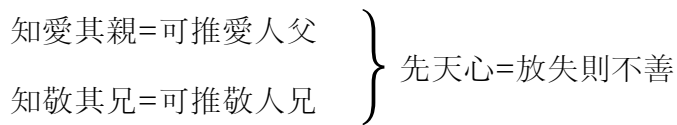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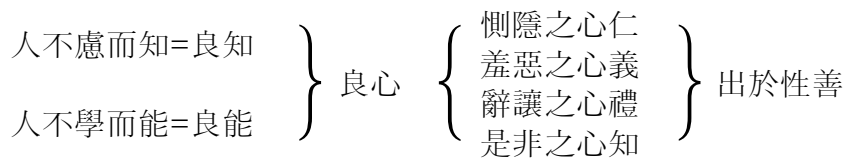
(가)

孔子的 政教一  
致  
德化主義의 綱領 } ————— { 明々德(本體)  
親 民(擴充) } 至善(目的)

知 { 止而後有定  
定而後能靜  
靜而後能安  
安而後能慮  
慮而後能得 } { 物有本末  
事有終始 } 知所先後則近道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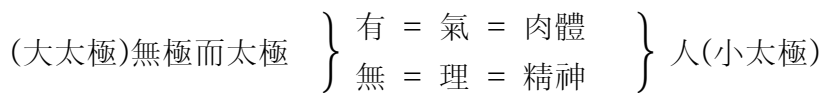


(나) 孟子性善說의 輪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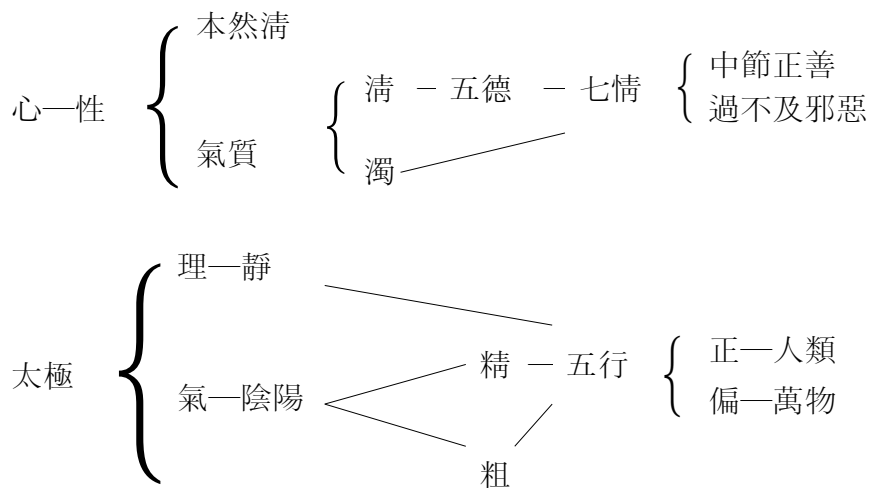


故 『學問之道無他求其放心而已』

(다) 周濂溪의 太極圖 修養法



(라) 朱晦庵의 心性及 太極圖說(程伊川張橫渠說同)



(마) 陸象山의 太極과 人性

宇宙—太極—理中—性—仁義禮智—本心—心

習—利欲私見—私心—(心の蒙蔽)

陸象山은 古學의 實踐主義를 復興하려는 東洋의 루네싼쓰 運動의 先鋒이 었으며 周朱의 無極說을 不定하고 싸라서 純理論을 排斥하는 푸래그마티즘의 一人者였다.

『獨以爲 古之性說約而性之存考者類多. 後之性說費而性之存焉者類寡(中略) 若夫未有篤敬之心 踐履之實而遽爲之廣性命之說 愚切以爲病已耳』

『千虛不博一實 吾平生學問無他只是一實』

이라고 한 點으로 보더라도 알 것이다. 朱子와 다른 點은 枝葉에 잇지 안코 根本에 잇스니 朱는 『無極而太極』이라고 하였고 陸은 『太極之上에 不當加 無極』이라고 하였고 朱는 道問學으로부터 尊德性에 歸納 하는데 陸은 尊德性으로부터 道問學에 演繹하였고 朱는 極을 端이라고 하는데 陸은 極을 中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陸象山의 思想을 一貫한 根本原理였다. 王陽明은 이 陸象山의 思想에 共鳴을 가지고 그를 繼承해야 맞춤내 獨自의 境地를 이룬것이다. 世稱陸王學 이라 함은 이 까닭이니 程朱學에 對한 對立的 指稱임은 勿論이다.

### 第三 王子의 學系

王陽明은 陸象山으로써 孔孟의 正統을 傳하었다고 推尊하였다. 王學의 中心思想인 知行合一論은 原來 程伊川으로부터 唱道된것이였스나 陸象山에 이르러 喫緊을 加味하고 그리고 王陽明이 이것을 完成한것이다. 『心으로써 學

問의 第一義를 삼은 것은 全然象山의 主張대로 傳하였다. 負笈의 直系는 陳白沙의 門이니 白沙는 吳敬齋에게서 受業한 사람이다. 敬齋白沙가 모다 朱陸을 先系로 한 사람들임은 勿論이다.

#### 第四 王學의 中心思想

##### 一, 心 卽 理

陽明의 本體觀은 『物心一如』의 一元論이니 『心卽理』라는 見解가 卽그것이다.

心은 곳 理니 心外의 事와 心外의 理가 따로 업다. 物理는 我心에서 求해야된다. 我心을 떠나서 物理를 求할 수 없고 物理를 떠나서 我心을 求할 수 없다. 心의 本體는 性이오. 性은 곳理다.

王子는 이러케 心卽理를 說明하야 이 心이 私慾에 蒙蔽함이 없스면 이것이 곳 天理라 하엿다. 그리 하야 이 天理의 純粹한맘으로써 對하면 모든 事物은 다 眞이오 善이오 美라고 하엿다. 父母를 對하면 孝道가 되고 子女를 對하면 慈愛가 되고 政事를 하면 善政이 되고 交人을 하면 信用이 된다고 하엿다. 이 心卽理라는 根本意가 필경 知行合一의 思想을 生케한것이다. 傳習錄原文에

『夫物理 不外於我心 外吾心而求物理 無物理矣. 遺物而求吾心 吾心又可物耶.』

『心卽理也 學者學此心也 求者求此心也.』

(筆者註= 學은 孔子의 이른바 學而時習之라는 學 求는 孟子의 이른바 求其放心이라는 求)

라고 한 것이라 던지 또는 羅欽順에게 對答한 글에

『理一而已. 以其理之凝聚而言則謂之性. 以其凝聚之主宰而言則謂之心. 以其主宰之發動而言則謂之意. 以其發動之明覺而言則謂之知 以其明覺之感應而言則謂之物. 故就物而言謂之格就知而言謂之致. 就意而言謂之誠. 就心而言謂之正. 正者正此也. 誠者誠此也. 致者致此也. 格者格此也. 皆所謂窮理以盡性也. 天下無性外之理. 無性外之物. 學之不明. 皆由世之儒者認理爲外. 認物爲外. 而不知義外之說. 孟子盖嘗闢之. 乃至襲陷其內而不覺. 豈非亦有似是而非難明者歟 不可不察也.』

라고 한 것등을 보더라도 王子의 心卽理가 무엇을 意味한 것임을 알 수 잇을 것이다. 心卽理의 本據는 性卽理에 잇고 性卽理는 卽 性善說의 眞髓라는 것이다. 性은 命에 本하고 命은 天에 因하얏다는 것이다. 要컨대 陽明의 心卽理는 儒學의 本傳에 擴衍을 거듭 하야 物心一如 心物皆理라는 統一點을 말한 것이다.

##### 二, 知行合一

王子는 上述한바와 가치 心卽理라는 原理로부터 知行合一을 規程한것이다. 知行合一說은 程伊川도 暗示한바가 있고 소크라테스도 말한 바가 있지마는 王子에 이르러 徹底하였다 할 것이다.

『知는행의 始오. 行은知的成이다. 知的 眞切篤實한바는 곧 行이오. 行의 明覺精密한바는 곧 知니 知行은 本是不可分이다.』

이 不可分の 知行을 後世學者들이 兩截하여서 知行이本體를 일케하였다는 것이 王子의 主張이다. 傳習錄原文에서 이 知行合一에 關한 句節을 抄錄하면 이리하다.

『知是行之始 行是知之成. 若會得時只說一個知己自有行在. 又說一個行 己自有知在』

『外心而求理 此知行之所以二也. 求理於吾心此聖門知行合一之教 吾子又何疑乎』

『知之眞切篤實處卽是行. 行之明覺精察處卽是知. 知行工夫 本不可離 只爲後世學者分爲兩截 用功失卻知行本體 故有合一並進之說. 眞知卽所以爲行 不行不足謂之知』

### 三, 良知說

위선 傳習錄의 原文을 摘記하면

『知善知惡是良知 爲善去惡是格物』

『良知本體 原是無動無靜的 此便學問頭腦』

『良知 只個是非之心 是非只是個好惡. 只好惡就盡了是非 只是非 就盡了萬事萬變』

原文에서도 볼 수 있는거와 가치 王子는 良知로써 人類의 先天的 普通性이라하고 聖愚의 別은 그 分量의 差에 있다고 하였다. 人心에 良心이 있는 것은 亘萬古塞宇宙에 不同함이 없고 天理가 人心에 있는 것도 古今을 通하여 始終함이 없으니 이 天理가 곧 良知라 하였다. 心の 虛靈明覺이 卽 本然良知니 이 良知로써 사람은 스사로 善을 알며 惡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 大學의『致知格物』이곳 致良知란 것이다.

### 四, 人性論

王子의 人性論은 孟子의 性善說을 是繼한것으로서 그 說明이 더한 層 通透한 것이다. 王子는 性卽心이라 하고 心の 本體를 無善無惡이라고 하였다. 或者 孟子의 性善說과 性無善無惡說이 矛盾된다고 할듯하나 王子의 無善無惡說은 孟子의 性善說을 一層擴充한 것이다

『性一而已. 仁義禮智性之性 聰明睿知性之質 喜怒哀樂性之情 私慾客氣性之蔽 氣有清濁故 情有過不及 蔽有深淺 私慾客氣 一病兩痛 不在二物云々.』

『生之謂性 生字卽是氣字 氣卽是性云云』

心卽性的 寂然不動體가 至善이다. 至善은 差別的 善 相對的인 善을 超越한 絶對善이다. 絶對善임으로 그는 惡은 勿論이러니와 惡과 相對的 觀念인 差別的 善도 아니오 無善無惡이다. 王子는 이리케 至善을 說明하고 人性的 寂然不動體는 至善이라고 한 것이다.

### 五, 進德修養

前記와 가튼 一貫한 思想으로 王子는 進德修養의 길을 아래와 가치 啓示하였다.

(一) 格物致知 聖人은 天理의 經을 얻으나 凡人은 私慾에 빠져서 良知의 本體를 얻지 못한다. 이것을 헤지는 길은 唯一이니 곧 格物致知다. 格物致知를 하여서 그本에 復하면 意는 스사로 誠해진다.

(二) 省察克治 사람은 思慮하는 바가 많다. 이것은 人慾의 一邊이다. 이런 때에는 靜坐하여 思慮를 쉬게 하여야한다. 그러나 이 靜坐가 한갓 懸空的 靜守에 빠져 枯木死灰와 가치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에는 또 달리 轉換하여서 省察克治의 功을 세워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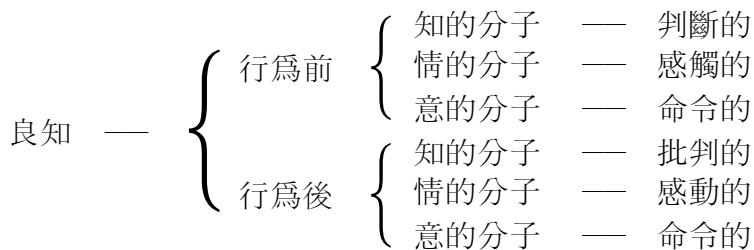
(三) 居敬 居敬은 存養하는 공부다. 存養이라 함은 此心의 天理를 存養 함이니 이것이 德性을 涵養하는 方法이다.

### 六, 王學의 要示

繁雜한 說明을 避하고 王學의 輪廓을 表示하려면 아래와 가치 要約할 수가 있다.

가, 良知의 解釋

(良知卽是天植靈根自得生生不息)



나, 致良知程度譬喻

- 1, 聖人之良知 如青天白日
- 2, 賢人之良知 如日下白雲聚散
- 3, 凡人之良知 如雨天之日
- 4, 愚人之良知 如暗夜

다, 致良知工夫

- 1, 靜的工夫—靜坐澄心(讀書調息等)
- 2, 動的工夫—事上鍊磨(活動實驗等)

라, 四句教

- 1, 無善無惡—心之體
- 2, 有善有惡—意之動
- 3, 知善知惡—是良知
- 4, 爲善去惡—是格物

### 第五 王學의 後繼

王學의 後繼는 直系門人으로 徐愛 錢德洪 鄒守益 歐陽德 南大吉 薛侃等 高弟가 있다. 이들은 모다 當時 儒學革命이 勇士들이었으나 元악 御用官學인 程朱派의 勢力下에서는 大功을 일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陽明沒後 겨우 二十年頃에 『南倭 | 浙江에 寇』함으로부터 王學은 日本에 건너가서 維新當時까지에 튼튼한 뿌리를 세웠다. 藤原肅을 비롯 하여 中江藤樹 熊澤蕃山 三輪執齋 雄琴石庵 佐藤一齋 眞鍋中齋 賴山陽等은 모다 日本維新思想의 策源이 되어 今日の 日本을 만든 것이다. 『칸트』를 反駁한 『오이켄』으로도 그 學說이 王學에는 一步를 讓치 아니치 못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王學의 本國인 中國의 今日에는 拜洋主義에 넘우도 醉하여 甚至於四千年中國에 칸트一人이 나지 못했다고 痛憤해하는 胡適이있다. 日本의 今日이 西洋文化의 輸入에 잇슴은 勿論이다. 그러나 西洋接觸이 日本보다도 數十年을 앞선 中國이 今日까지 잠을 자게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中國은 虛論에 흐른 程朱學에 支持되고 日本은 實[踐]을 爲主한 陸王學을 崇尚한것이 아마 原因의 太半일것이다. 朝鮮學系의 由來가튼 것은 學論할 必要도 없슬가 한다.

### 第六 餘 錄

陽明의 思想을 좀 더 알리기 爲하여 世上이 爭道하는 『啾々吟』과 『朱子晚年定論』의 序文을 記錄한다. 조흔 參考가 될 것이다.

(啾々吟)知者不惑仁不憂. 君胡戚々眉雙愁. 信步行來皆坦道. 馮天判下非人謀. 用之則行舍則止. 此身浩蕩泛虛舟. 丈夫落々掀天地. 豈顧束縛如窮囚. 千金之珠彈鳥雀. 掘土何煩用鋤鏤. 君不見東家老翁防虎患. 虎夜入室銜其頭. 西家兒童不識虎. 執竿驅虎如驅牛. 痴人懲噎遂廢喰. 愚者畏溺先自投. 人生達命自洒落. 憂讒避毀徒啾々』

(朱子晚年定論序)洙泗之傳 至孟氏而息. 千五百年 濂溪 明道 始後追尋其端. 自後辨析日詳. 亦日就支離決裂 旋後堙晦. 吾嘗深究其故 大抵皆世儒之多言 有以亂之. 守仁早歲學業 志詞章之習. 既乃稍知從事正學而苦於衆說之紛撓疲茫 無可入. 因求諸老釋欣然有會於心 以爲聖人之學在此矣. 然於孔子之教 間相出入而措之日用 往々缺漏無歸依違往返 且信且疑. 其後謫官龍場 居易處困動心忍性之餘恍若有悟. 體念探究 再更寒暑證諸五經四子 沛然若決江河而放諸海也.

然後嘆聖人之道 坦如大路而 世之儒者妄開竇經 蹈荆棘 墮坑塹。究其爲說 反出二氏之下。宜乎世之高明之士 厭此而趨彼也。此豈二氏之罪哉？